

100자 뉴스

조계종 태국 구호단 파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최근 홍수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태국을 돕기 위한 구호단을 파견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종단은 구호단 파견 외에도 1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도 지원한다. 이번에 파견되는 구호단은 11월 18~ 22일 태국 현지에서 구호 물품을 구입하고 배분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박기범 기자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 문화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11월 25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 문화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주제로 이기향의 예술 의상쇼 '춤추는 단청' 및 성의신의 해금, 마하연의 실내악 연주, 정행 스님의 가곡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제5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자 청소년들의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어 학습에 흥미를 높이고자 제5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암송대회는 2012년 1월 7일 전법회관 국제포교사회 사무실에서 예선을 거친 뒤,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참가대상은 초·중학생 1명 또는 2명 이상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2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22-2206 이은정 기자

연꽃문화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성료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11월 6일 제27회 연꽃문화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을 성료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보호 지도사 및 어린이 200여 명이 모여 '등불, 기도, 보물'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글짓기 등을 비롯해 우드마커 비누 클레이 만들기 체험 나눔놀이 소통놀이 도전108초 체육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은정 기자

월정사 단기출가 모집

월정사(주지 정념)가 행사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31기를 1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단기출가졸업 후 정식 출가희망자를 우선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 출가행자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대상은 20~26세까지 가능하며 40세 이상은 전체 정원의 30%만 선발한다. 최종합격은 심사위원 스님들의 면접을 통해 12월 10일 발표된다. 수행기간은 2012년 1월 4일~2월 2일 진행된다. (033)339-6616 이은정 기자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문광부 우수 도서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편)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8월 1일~2011년 7월 31일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교양도서를 대상으로 접수된 5389종의 도서를 심사해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등 410종을 올해의 우수교양도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은 번역학자, 불교학자, 생물학자, 철학자, 과학기술사학자가 학문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교와 진화론의 관계를 탐론한 책이다. 이은정 기자

5대 결사는 총무원장의 본래 의무일 뿐

"전문적 수행만 강조하며 수행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 장사 행위에 불과하다."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의 참된 의미를 논의하고 수행결사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실은 11월 7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수행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열었다. 발제자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삶의 길의 수행'과 '자성과 쇠신의 결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우희종 교수는 생명과 비폭력의 개념을 통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수행의 의미를 제시했다. 우 교수는 "생명존중과 비폭력이라는 두 수레바퀴와 수행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대승불교의 모습은 보살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행은 연기실상을 깨닫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생명존중과 비폭력이라는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행위"고 말했다. 현실과 분리된 곳에서의 전문가적 수행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수행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우희종 교수는 또 연기법을 관계성으로 이해하고, 폭력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석했다. 우희종 교수는 "불교의 모든 가르

침은 연기법에서 나온다.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폭력이며 이로 인해 모든 존재의 불필요한 고통이 생겨난다. 결국 폭력이란 관계의 단절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연기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삼독심, 무명, 집착을 버리고 바람직한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우희종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 시

우희종, 수행의 실천 강조 "수행은 생명의 존중 구현" 김호성, 결사 자발성 한계

대에 따른 불교적 삶과 수행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깨어있지 못하고 막연히 따라갈 경우 삶에 폭력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적 수행과 가르침이 일상의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 교수는 "주변에 단절되거나 왜곡된 관계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참여의 삶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불교적 삶이다"며 수행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희종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해 토론자인 조계종 교수 아사리 명법 스님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비폭력과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연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명법 스님은 "환멸문의 입장에서 연기는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연기의 이런 측면은 또 다른 이름인 중도에서 더 분명해진다. 중도는 관계성이 아니라 대립의 양면을 떠나는 것이다. 연기를 비폭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사회 참여에 굳이 불교수행을 끌어들이 필요가 없다. 단절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실존적 단절이다. 삶의 현장성 그 자체에 통일되지 않게 단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자성과 쇠신 결사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결사와 불교사의 다른 결사의 차이점과 결사 성립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 집행부와 총무원장이 앞장서서 결사를 선언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 의외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종단=결사'의 등식이 성립하는 이번 결사를 '종단 결사'로 규정하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호성 교수는 "종단이 결사이고 결사가 곧 종단이라는 것은 종단의



수행결사를 점검하기 위한 학술회의 자리에서 토론자들의 모습

구성원이 결사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아무런 자의도 없이 자발적 원력 실천이 아닌 타율적으로 동참하는 '위로부터의 결사'라는 점이다"고 밝혔다. 중앙결사의 의지만큼 대중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5대 결사를 실천하느냐가 이번 결사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호성 교수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주창해서 일어나게 된 이번 결사는 결사가 아닌 '즉비(即非)결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사에서 실천하겠다는 5대 결사의 내용은 총무원장의 본래 의무일 뿐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결사 선언처럼 언행일치가 된다면 결사의 촉발 이유가 해소되고, 자주 종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불교는 새롭게 환골탈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번 결사의 미흡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천명한 수행결사가 교과서적이고 구제적 미흡한 실천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행결사의 실천규약, 실천방안 모두 '어떻게'에 대한 답이 부족하고, 윤리적 내용과 계학(戒學)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런 문제들이 중앙에서 정체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의미가 있다. 비어 있는 중심을 대중결사를 통해 선정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성전암, 진주시와 복원공사 '갈등'

시청·사찰 법리 해석 이견 성전암 '명백한 종교탄압'

진주 성전암(주지 성공)이 화재로 소실된 사찰 복구공사를 놓고 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성공 스님은 11월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진주시가 전통사찰인 성전암의 복구 공사를 불허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 화재로 대웅전과 요사채 등이 소실됐던 성전암은 올해 4월 진주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9월 경 진주시청은 법적 기준에 미흡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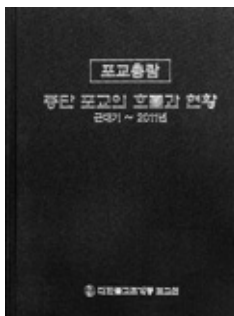
허가가 어렵다며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성전암이 복구를 추진하는 요사채와 선방, 산신각 등은 종교용어가 아닌 산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다. 성전암은 복구 공사를 하면서 이를 양성화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고, 진주시는 종교용지 안에 지오라며 성전암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성공 스님은 성전암이 명백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18조에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10조 6항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전암측은 이런 법 규정을 근거로 진주시청의 공사 불허 통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전 스님은 "이는 성전암 뿐만 아니라 전국 1000여 개 전통사찰의 보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부당한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성전암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한국불교 포교역사 한 눈에

포교원 (포교총람) 편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직무대행 계성)이 근대기부터 현재까지 종단 포교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포교총람>을 편찬했다. <포교총람>은 제1장에서 별원 이전의 종단 포교 역사와 1995년 별원 이후의 포교원을, 포교원장스님들을 중심으로 포교의 지향과 중점 과제, 사업성과 등을 각 시대별로 정리했으며, 제2장에는 포교원의 주요 사업과 포교현황 등을 망라했다. 총 46차례에 걸친 포교정책연구회의 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제목은 물론 포교와 관련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비롯해 그동안



포교원이 어떤 고민을 해왔으며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려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신도교육과 조직 전법단, 수도권 포교에 대한 전반적 사업흐름의 의미와 성과 등을 조망하고, 각종 포교 신도단체와 포교와 관련된 규정·규칙 등도 상세히 담고 있다. 포교원은 "총람 발간을 계기로 포교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고려대장경 성보관 부처님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입동지절을 맞아 각계 강호제현님과 제방의 대덕큰스님 그리고 사대부중 여러분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히 나투어 소원성취 하시옵길 합장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에서는 고려대장경성보관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분망할 줄 사료되오나 저희 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고려대장경 석판본 성보관 건립을 성원하는 뜻에서 수희 동참하시어 뜻 깊은 법석을 빛내 주시옵길 앙망하나이다.

- 일시 : 2011년 11월 26일(토요일) 13:00
■ 장소 :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성보관
■ 전화 : 054)533-5670, 팩스 054)533-8874
02)2198-5022~4 02)2198-5025

\* 행사장에 점심공양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양후 오후 1시부터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이사장 신상길 봉행위원장 서의현 합장

■ 고려대장경석판본 총본산 대장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 18-1 TEL : 054)533-5670, FAX : 054)533-8874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공동 58(두산위브파빌리온 1019호) TEL : 02)2198-5022~4, FAX : 02)2198-5025

